



알칸사사랑의교회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은혜로 성장하길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본 교회는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단에 소속된 건전한 교회입니다.
The church is a sound and conservative Presbyterian church and belongs to the 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

■ 섬기는 이 (Church Staff)

담임목사 홍성태 Rev. Sungtae Hong
(501-703-3251 / nanumsangja@gmail.com)
중앙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 졸업
Graduated Chungang Univ. &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온누리교회, (서울)지구촌교회, 더사랑의교회 사역

당회원 (Session Member)
김재철(관리), 이윤희(재정), 전영순(예배)
Brian Kim (Management),
Yun Lee (Finance),
Young Soon Jeon (Worship)

■ 오시는 길 (Church Location)



■ 선교사 후원 (Missionary Sponsorship)

- 정기 후원 (Regular)
- Muazzam John (Nehemiah Trust Pakistan, Pakistan)
 - Adam & Rachel Jamison (Hope Ignited, African Guinea)
 - 김금찬 & 김미자 (Dany & Mi Kim) (JDM, El Salvador)
 - 이주영 & 조윤미 (YJ Lee & YM Jo) (Gallaudet University, NY)
 - 김대원 & 정만희 (DW Kim & MH Joeng) (HIS, Cambodia)

■ 모임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Adult Worship	오전 11:00 Sun am 10:55	본당 Main Hall
수요일예배 Wednesday Worship	저녁 7:30 Wed pm 7:30	본당 Main Hall
토요일예배 Saturday Worship	오전 7:00 Sat am 7:00	본당 Main Hall

어린이 예배와 모든 소그룹 모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분간 모임이 없습니다.
Children's services and all small groups are not held due to COVID-19.

2021년 6월 20일
제1039호, 2021-25
담임목사: 홍성태 (Rev. Hong)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주일 오전 11:00		인도: 홍성태 목사 [Pastor Hong]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Jubilate Praise Team
참회의 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함께 Together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Together
찬 송	Hymn	나 주를 멀리 떠났다 When we walk with the Lord
대표기도	Representative Prayer	조순자 권사 Sis. Sun C. Stamp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Pastor Hong
설 교	Sermon	호세아 [Hosea] 1:1-9 사랑보다 깊은 상처 [Without Love, No Anger] 홍성태 목사 (Pastor Hong)
송 영	Doxology	선한 능력으로 Von Guten Mächten
축 도	Benediction	설교자 Pastor Hong

**예배 중 헌금시간이 없습니다.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Offering time during worship. Please do it before the service.

주 중 모 임 [Weekly Meetings]

수요일예배 [Wednesday] (6월 23일 저녁 7:30)	토요일예배 [Saturday] (6월 26일 오전 7:00)	목장모임 [Small Group]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There is none like Him] [열왕기하(2 Kings) 18:1-6]	생명의 삶 [Living Life] [출애굽기(Exodus) 31:1-11]	당분간 열리지 않습니다. [Temporary Closed]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Welcome!!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2. 예배에 대한 안내

모든 공예배(주일, 수요일, 토요일)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1) 현장예배

- 지정된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자주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예배 후의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대면접촉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예배

- 정확한 시간에 단정한 복장으로, 현장에서 예배할 때와 똑같이 예배합니다.
- 예배 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온 가족이 경건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082902757 501711864(Centennial Bank)

**교회 주소: 8201 Frenchmans Ln, Little Rock, AR 72209

3) 어린이 및 유스가 있는 가정에서는 예배 전 후에 꼭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및 단체채팅방에 링크된 콘텐츠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홈페이지 공지게시판과 단체채팅방에 영어사용자를 위한 설교요약문과 주보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6월-7월 대표기도

27일: 전영순, 7월 4일: 신성순, 11일: 최은정, 18일: 김지은, 25일: 신종화

4. 책임목사 휴가 중 예배 안내

-휴가기간: 6월 28일(월)~7월 3일(토)

-주일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영상 설교로 대체합니다.(정회원 카톡방에 링크를 올릴 예정입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 참석 및 인도는 하되, 설교는 영상으로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예정입니다.

5. 기도합니다!

Pray at Home

1. 코로나와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조국과 미국을 위해
2. 특별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가 일부의 나라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3. 이땅에서 폭력과 인종차별과 우월주의가 사라지고,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가 사라지도록
4. 교회를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예배 진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한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5.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6.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6월의 묵상 본문 : 시편, 출애굽기

은혜 나눔

Four Lies That Keep Us from Prayer by Scott Hubbard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말들

'기도할 시간이 없어'

우리의 기도를 막는 많은 거짓말 중에서도 특히 이 똑똑한 한 줄의 말은 종종 진짜같이 그럴듯해 보인다. "24시간 밖에 없는 내 하루는 이미 꽉 찼어, 그러니까 기도는 내일 해도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병환자를 치료하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려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눅 5:1)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눅 5:15).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고 자연스럽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 단지 치료를 받으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도" 몰려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상황에서, 예수님도 기도를 건너 뛰고 이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 말씀을 좀 더 가르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데 그 다음 구절을 보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눅 5:16). 예수님의 매일매일 스케줄은 결코 가장 크게 소리를 지르는 다급한 일에 좌우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시간이 없어' 와 같은 거짓말에 결코 속지 않았다. 기도에 전심을 쏟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수없이 찾아드는 차선의 선택지들을 향해서 "노" 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순종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긴급한 일이 만들어내는 마음속 혼란은 성령님의 지배하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도는 노력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내뱉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다. 그러나 평소의 삶에서는 다 그것을 느낀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집중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늘 응답이 있었는가? 도리어 우리의 의지력은 약해지고 돌아오는 결과도 미약하기 짝이 없기에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데 이 거짓말에는 반쪽이지만 진실이 담겨 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대로, 기도는 끈질긴 노력을 필요로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눅 18:1) 한다고 가르쳤다. 사람이라면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과부처럼(눅 18:1-8),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나 받지 못하고, 찾으나 찾지 못하고, 또 두드리나 안에서 부터 잠긴 문은 열리지 않을 것 같으나(마 7:7) 그런 시간도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노력이 다 허사라는 거짓말을 깨어부순다. 진실되고 믿음에 찬 모든 간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모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모든 문은 언젠가는 열리게 되어 있다(마 7:8). 우리의 아버지는 기도 속에 갈등하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야 '좋은 것들' (마 7:11)로 채울지 잘 알고 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엿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는 시간, 그리고 머리를 숙이는 이 모든 기도의 시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기도가 그냥 허공을 때리는 것만 같은 날이면 C.S. 루이스의 다음 조언을 기억하도록 하자. "소위 말하는 '종교적 의무' 를 수행할 때 우리는 마치 물이 없는 땅에 수로를 파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 터져나올 때, 우리는 물이 거기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시편사색). 기도하는 어떤 날에는 그냥 땅을 파고 또 파면서 비를 기다리고만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물을 마신다. 그러나 땅을 파지 않고는 물을 마실 수 없다.

스캇 허버드(Scott Hubbard)는 Bethlehem College & Seminary 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desiringGod의 에디터이다.